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Read) · 기도(Pray) · 감사(Give Thanks)"

연중 제12주일

2021년 6월 20일(제486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사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온라인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올드레아: 온라인
	항심 기도회: 온라인
성시간	일시 중단

주일 / 평일미사: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서 'TVKCC mass' 검색

미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평일미사	화,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Temporarily suspended
	Youth Mass	Temporarily suspended
고해성사	교중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제1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제2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입당송 |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욥기 38,1,8-11 Job 38:1, 8-11

화답송 |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Psalms 107:23-24, 25-26, 28-29, 30-31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Give thanks to the Lord, his love is everlasting. or: R. Alleluia.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They who sailed the sea in ships, trading on the deep waters, These saw the works of the LORD and his wonders in the abyss.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His command raised up a storm wind which tossed its waves on high. They mounted up to heaven; they sank to the depths; their hearts melted away in their plight.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They cried to the LORD in their distress; from their straits he rescued them, He hushed the storm to a gentle breeze, and the billows of the sea were stilled.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 They rejoiced that they were calmed, and he brought them to their desired haven.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kindness and his wondrous deeds to the children of men. ◎

제2독서 | 2코린 5,14-17 Second Corinthians 5:14-17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Alleluia.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A great prophet has risen in our midst God has visited his people. ◎

복음 | 마르 4,35-41 Mark 4:35-41

영성체송 |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 영원하시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윤정의 알폰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사제들과 종종 산에 갑니다. 등산 시 사족보행을 하다 보면 비루한 체력 때문에 숨을 헐떡입니다. 마음속으로 신세 한탄도 해보지만 몇 차례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한결 편해집니다. 산에서 느끼는 이 '한계 체험'은 형제들과 함께 봉우리에 다다랐을 때 성취감으로 보상받습니다. 또한, 이 한계 체험은 설렘과 기쁨으로 다음 산행을 기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성경 말씀에서도 한계 체험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욥기 38,1,8-11)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무죄한 의인 욥이라는 인물의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즉 한계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정의, 그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의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심오한 질문들이 욥기 안에서 던져집니다.

제2독서(2코린 5,14-17)는 신약성경 코린토 2서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 상황에서 바오로가 쓴 편지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활동으로 분열된 공동체, 즉 한계 체험을 겪고 있던 공동체를 향해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이 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속된 기준으로 주님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속된 기준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마르 4,35-41)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계 체험을 겪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갈릴래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풍이 일어 물이 배 안까지 가득 찹니다. 한편 스승님께서 태평한 듯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 안절부절못하던 제자들, 심지어 스승님을 원망했을 그들 앞에서 마

침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멎고 고요해집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한계 체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서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탁 트인 능선길도 만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과 바윗길을 걸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걷다 보면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여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한계 체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훈계는 한계 체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산에 오릅니다. 이 길 위에서 만나게 될 한계 체험이 기쁨과 설렘으로 바뀌려면 이웃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 이웃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걷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감과 소통, 연대와 격려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희망해봅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b>영동 순두부</b>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 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b>Tri-Valley Orthodontics</b>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b>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b>  <b>민주란 아우레아</b>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b>신세계 여행사</b>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 5분 묵상

이 시대의 가장 극렬한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 세계입니다. 미움, 시기, 원망,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열등감, 의욕상실, 패배감 등의 모든 심리적 갈등은 각종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한 마음가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번민의 상당 부분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되지만 부정적인 마음자세는 자신의 체질을 서서히 산성화시켜서 결국 병적 체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심신 상관의학이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최고의 예의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감사는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게 되며 이웃을 얻게 됩니다. 영육의 총체적인 건강을 누리려면 마땅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 앤더슨(Anderson 1902- 1993)이라는 유명한 성악가는 '백년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혼자 나와서 미국 국가를 부를 정도로 취임식의 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 흑인입

니다. 그렇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나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데 하느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1티모 4,4)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분명 모든 것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굿뉴스에서-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	기도	감사
	하느님 말씀에 가까이 머물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어지는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식별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갑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성 요셉의 해**  
PROCLAMATION OF THE YEAR OF ST. JOSEPH  
기간: 2020년 12월 8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500 Dublin Blvd. #206  
Dublin CA 9456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10-776-5856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 7월 11일 St. Elizabeth 성당에서 첫 미사가 봉헌됩니다

- Pandemic 이후 오랜 기간 재택, 온라인의 편리함에 신앙생활이 나태해 지지는 않았는지, 미사 참례 의무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성전으로 향할 준비를 합시다.
- 주소: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 미사 시간:
  - 주일: 오전 9시 30분(한국어), 오전 11시(영어)
  - 평일: 화, 목, 금 오전 9시 30분

■ 실내 미사 전면 재개 안내

- 주 정부와 교구의 Covid-19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6월 15일부터 실내 미사가 전면 허용됩니다.
- 우리 공동체는 센터의 법정 정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가 되는 실내 인원수가 큰 의미 없는 수준으로 실내 미사 전면 재개는 St. Elizabeth 성당 첫 미사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Pandemic 이후 시행되어온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 조치는 8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즉, 8월 15일부터는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 미사 전면 재개와 관련된 교구의 세부 시행지침은 이메일로 공지하겠습니다.

■ 6월 주요 전례 일정

- 6월 24일(목):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 6월 29일(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 6월 반모임 일정

루 카 4	6/26(토) 8:00 PM	온라인	925-551-1233
마태오 3	6/26(토) 7:00 PM	온라인	224-707-0119
5	6/26(토) 8:00 PM	온라인	408-966-5496

■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http://www.tvkcc.org/giving-2)

■ 온라인 미사에물 봉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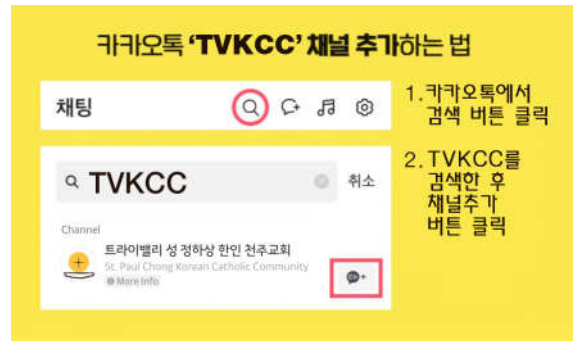
- 온라인 미사에 미사에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cliturg@gmail.com](mailto:tvkcccliturg@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prayer\\_requests](http://www.tvkcc.org/prayer_requests)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060	-	-	\$300	\$20	\$20	\$1,40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이용호(5,6), 조희진(5,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용호(5,6), 이주하(1-6)
- **Bishop's Appeal**  
이용호(5,6), 이주하(1-6)
- **감사헌금**  
김지수, 류종필



복음화 지향: 혼인의 아름다움 / The Beauty of Marriage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for young people who are preparing for marriage with the support of a Christian community: may they grow in love, with generosity, faithfulness and patience.

■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니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니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화, 목, 토):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